

외식관련전공 대학생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권영국·윤혜현[¶]
경희대학교 조리·서비스경영학과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by Gender

Young-Guk Kwon · Hye Hyun Yoon[¶]

Dept. of Culinary and Food Servic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up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through the pull and push factors of the motivation theor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s by gender. Based on total 317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exploring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pull factors, need for achievement ($p<0.001$) and self-actualization ($p<0.01$)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t appears that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were developed by positive entrepreneurial motivation. The moderating effects by gender were not significant. Through the study results with theoretical suggestions, this study proposed a policy to encourage entrepreneurial activation and desires in college students. Limitations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Gender, Moderating effects, College students

I. 서론

최근의 이슈는 청년 실업률과 함께 청년층의 진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새로운 관심사라 할 수 있다(Lee SM 2009). 통계청(2011)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가 28만 80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청년 실업률은 6.8%로 나타나 2010년 대비 1만

3000명이 증가하였고 청년 실업률 역시 0.4%p 높아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중장기적인 다양한 접근의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 고용 없는 성장, 취업시장의 구조적인 일자리 부족과 취업전쟁에 빠져있는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대거 늘리거나 나누는 일 등

¶: 윤혜현, 02-961-9403, hhyun@khu.ac.kr,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준비케 하는 등 진로 다양성을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Lee SM 2005).

직업은 개인의 생활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진로 선택이야말로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Lee JC 등 2007). 대학생 시기는 재학 중에 진로 개발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하는 시기이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통해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잠정적으로 내려야 하는 시기이다(Yoon MH 등 2010). 또한, 청소년기에 특정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직업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을 감당해야 하며(Kim MJ · Kim BW 2007), 진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력해주는 조언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진로교육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Cho HJ 2010; Kim HS 2001), 대부분의 대학은 절대 다수부분을 취업 지향적 부분에 투입되고 있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경쟁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제는 진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Lee SM 2009).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대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중에서도 창업을 통한 자생적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안의 하나라 할 수 있다(Park C · Kang YR 2010).

Yoon JY(2010)의 연구에 따르면, 외식전공 대학생들의 희망직업의 경우 외식경영 컨설턴트(41.7%), 외식업체 종사원(35.4%), 외식창업(22.9%)의 순으로 나타나 창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창업을 하려는가? 왜 기업가가 되려는가?의 창업에 대한 동기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과 장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Yoon MH 등 2010),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때로는 긍정적 혹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Yoon YR 2007). 따라서 대학생들이 창업을 유망한 진로로 받아들이는지, 창업을 위해 어떠한 욕구와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졸업 후 창업을 하려는 동기와 창업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창업의사결정과 창업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의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Ha KS 2011; Yoon BS 2004), 의도는 미래 목표 행동에 대한 신념으로 창업의 실행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변수이며(Ajzen I & Fishbein M 1980), 창업에 대한 인식 즉, 창업동기는 창업의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로서 긍정적 창업동기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an C & Malin B 2011).

창업동기에 대한 연구는 복잡적이고 다양한 이론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론 가운데 긍정적 창업동기 즉, 유인요인(pull)과 부정적 창업동기의 추진 요인(push)의 연구(Alan C & Malin B 2011; Lee SS 2006; Taormina RJ & Sammi KML 2006; Wang C *et al.* 2006; Segal G *et al.* 2005)가 진행되고 있으나 명확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Kuratko DF *et al.* 1997). 반면, 창업동기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외식창업 동기 요인에 관한 연구(Kim HC · Hong KW 2008), 창업동기와 성공요인 인식차이 연구(Kang SI · Lee KH 2010)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 연구(Lee SS 2006)가 수행되어 왔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과정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는 물론, 연구 영역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따른 창업동기와 창업의도의 관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동기 및 창업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성별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며(Park SS · Kang SI 2007; Kim HC · Hong KW 2008), 인적자본이 창업자의 창업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특

히 남녀에 따라 창업동기와 창업의도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Kang SI · Lee KH 2010; Scheiner C *et al.* 2008; Hisrich RD & Brush 1984). 더구나 도전정신과 사회적 활동을 권장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창업 성향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Park C · Kang YR 2010),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성별이 창업동기와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창업동기 및 창업의도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창업동기와 의도에 따른 남녀의 차이 연구가 국한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특히 외식관련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동기와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로 수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관련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창업동기와 창업의도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의 존재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관련전공 대학생들의 창업을 하려는 동기는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창업동기와 창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진로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업동기

동기는 특정한 목표로 행동을 유도하는 지속적인 경향(Engel JF *et al.* 1995)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Henry A 2001; Desi EL & Ryan

RM 1994)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사람의 행동과 활동을 통합하고 자극시키며 지시하는 심리적·생리적 필요와 욕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창업동기는 행동을 유발시키며 방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창업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Alan C & Malin B 2011; Perwin L 2003). 창업과 관련된 동기는 경제학과 조직심리학을 모체로 발전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동기 이론으로는 Maslow AH(1954)의 욕구단계설, Vroom VH(1964)의 기대이론 그리고 Gilad B & Levine P(1986)가 제안한 추진-유인 이론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3가지 중 Gilad B & Levine P(1986)의 추진-유인 이론은 창업행동에 대한 동기를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론으로 추진(push) 요인은 배고픔, 두려움,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자신의 욕구이며, 직무 불만족, 퇴직, 낮은 임금, 어려운 고용현실, 부적절한 근무스케줄과 관련된 부정적인 외적 영향력(Curran J & Blackburn RA 2001; Buttner EH & Moore DP 1997; Roffey B *et al.* 1996)이다. 유인(pull) 요인은 성취욕구, 야망, 독립심, 부와 관련된 욕구 및 자아실현 등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내적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Orhan M & Scott D 2001; Kleeble D *et al.* 1992).

기업 및 외식업과 관련된 창업동기의 유인 요인에 대한 연구를 고찰해 보면, Wang C *et al.*(2006)은 호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동기를 조사하여, ‘자기개발 동기’, ‘재무적 동기’, ‘추진동기’, ‘자율성’ 등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Taormina RJ & Sammi KML(2006)는 337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창업을 하려는 동기는 ‘자아실현’, ‘높은 수입’, ‘성취욕구’, ‘행복추구’ 등으로 조사되었다.

Kim HC과 Hong KW(2008)은 외식창업의 동기척도를 개발하여 측정한 결과, ‘성취욕구’, ‘미래 안정성’, ‘좋은 상권’, ‘지식활용’, ‘진취적 활동’ 등의 긍정적 동기와 생계형과 퇴직형의 부정적 동기로 구분하여 외식창업 동기 척도개발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ang SI과 Lee KH(2010)는 제주도의 지역음식점 사업자의 창업동기와 성공요인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도전·성취욕구, 자율성, 경제성의 3개의 동기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도전·성취욕구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적 변수와의 차이 검증 결과, 도전·성취동기나 자율성 동기 보다는 경제적 동기가 성별, 연령,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부정적 창업동기(Push) 보다는 긍정적 창업동기(pull)로 창업을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Lee SS 2006; Segal G *et al.* 2005; Orhan M & Scott D 2001; Birley S & Westhead P 1994; Kleeble D *et al.* 1992).

창업동기의 추진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 불만족, 퇴직, 낮은 임금, 어려운 고용 현실(불확실성)을 통해 창업동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Buttner EH & Moore DP(1997)는 ‘불안한 직장생활’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으며, Lee JH & Venkataraman S(2006)는 확실한 대안인 ‘시장제공 기회’를 통해 자신의 목적이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장제공 기회를 선택할 것이나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찾지 못했을 경우 불확실한 대안인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 크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시장 환경의 경제적 인식에 따라 창업에 대한 개인의 성향이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창업에 대한 비이성적인 유행과 혐오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Lee JH 2008). Dennis W(1996)는 추진 요인(push)이론을 입증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불황기에 자영업이 훨씬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하였고, 같은 맥락의 연구들(Jeon BY 2003; Acs ZD *et al.* 1994; Evans *et al.* 1989)에서도 실업률이 확산될수록 자영업이 증가하고 취업보다는 기업가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언급하였다. Brockhaus RH(1980)는 창업이 이전 직장에서의

‘직무와 직장 상사’ 그리고 ‘승진에 대한 불만족’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의 만족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Noorderhaven NG *et al.*(2003)은 유럽 12개국을 대상으로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자영업 수준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변수로서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불만족’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Lee SS(2006)은 여성경영자를 대상으로 창업동기를 독립성과 소득, 자아실현의 유인 동기와 ‘창업기회’ 및 ‘직무불만’ 등의 추진 동기로 구분하여 창업동기를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Kim SS(2009)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 즉, 취업의 대안을 창업동기로 제시하였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동기(유인요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Scheider C 2008; Lee SM 2005). Lee SM(2005)은 한·미·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동기를 조사한 결과 일본 대학생들은 ‘좋아하는 일하기’, ‘자신의 능력 활용’ 등의 동기가 나타났으며,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와 ‘하고 싶은 일하기’ 등의 자율성과 경제성과 관련된 동기를 제시하였다. Scheider C(2008)는 대학생 5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아실현’, ‘독립성’, ‘자율성’, ‘높은 수입’, ‘경험 쌓기’ 등의 창업동기를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창업동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유인 요인에는 ‘자율성’(독립심)과 ‘성취욕구’, ‘자아실현’, ‘경제성’(소득, 부의축적)의 요인과 추진 요인으로는 ‘승진 및 직무의 불만족’, ‘취업의 대안’ 등이 중요한 창업동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ng SI과 Lee KH(2010), Scheider C *et al.*(2008)과 Taormina RJ & Sammi KML(2006) 그리고 Lee SM(2005)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인 요인, ‘자율성’과 ‘성취욕구’, ‘자아실현’, ‘경제성’의 창업동기와 Kim SS(2009)이 제시한 ‘취업의 대안’을 추진 요인으로 선별하였으며 직장에서의 승진 및 임금, 직무와 관련된 불만족 등의 추진 요인들은 대학생들의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으

며 이러한 창업동기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식 관련전공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창업의도

창업(entrepreneurship)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Gartner WB *et al.* 1992)으로 창업의 속성 중 기업 설립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업의 시작이나 설립’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Morris MH 1998), 창업이 하나의 조직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이고 ‘존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존재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Park SS · Kang SI 2007).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Jo YJ · Lee SH, 2012), 대학생의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행동으로 유발하게 하는 심리적 상태이며, 창업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Krueger NF *et al.* 2000; Kim MS · Kim YG, 2012).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Bird B 1988). 창업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Yoon BS 2004),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rueger NF 1993).

창업과정을 살펴보려면 창업시작 단계의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의 전제조건인 창업의도가 있어야 한다(Naffziger DW *et al.* 1994). 창업의도는 새로 설립될 기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Park SS · Kang SI 2007; Crant JM 1996), 계획적 행동이론은 창업행동을 예측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Krueger NF *et*

al. 2000; Krueger NF & Carsrud AL 1993).

창업의도와 창업행동 간의 관계는 Fishbein M & Ajzen I(1975), Ajzen I & Fishbein M(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Ajzen I(1988, 1991)의 계획적 행동이론(TPB) 모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Park SS · Kang SI 2007; Lee JW 2000). 계획적 행동이론(Ajzen I 1991)에 따르면 행동은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개인이 얼마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의해 예측되고 의도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변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추가된 변인인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Ajzen I(1991)의 계획적 행동 이론은 사회심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오랫동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창업 관련 분야에서도 창업의도에 적용하여 창업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Nishimura JS & Tristan OM 2011; Van Gelderen M *et al.* 2008; Fayolle A *et al.* 2006; Douglas EJ *et al.* 2002; Krueger NF *et al.* 2000; Autio E *et al.* 1996). 또한, 창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대로 창업의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초기의 연구는 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고(Park SS · Kang SI 2007; Lee JW 2000), Yoon BS(2004)은 창업의도의 결정요인으로서 개인특성과 환경요인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창업의도의 관계를 창업자의 성격유형(Kim DJ *et al.* 2009)등에 관심을 두다가 점차 창업교육 등으로 확대되어 동기부여 및 창업스킬, 목표와 비전까지 연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ark Y S · Ko JY 2011).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외식관련전공 대학생들의 창업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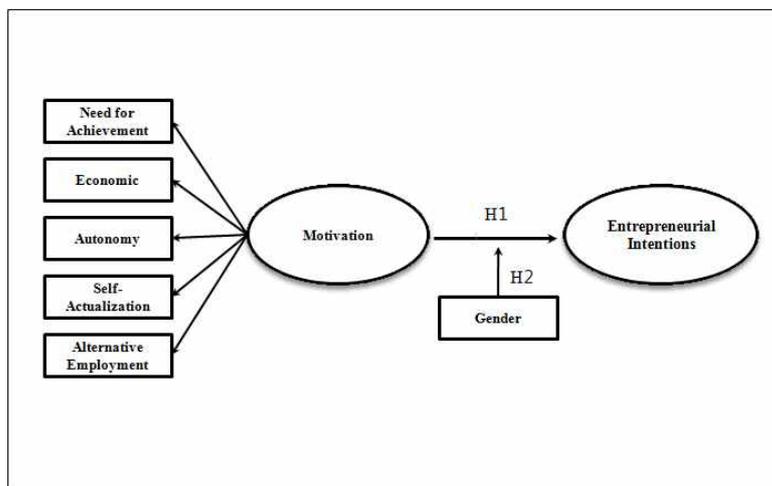
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1) 창업동기와 창업의도와의 관계

Alan C & Malin B(2011)에 의하면 창업동기는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단서가 된다고 언급하였고, Bird B · Schjoedt KJ(2009)는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와 창업행동 간의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Pruett M *et al.*(2009)은 각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창업동기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창업동기 요인 중 재무 및 의사결정에서의 자율과 관련된 독립성과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Choo S & Wong M(2006)은 내적, 외적 보상과 독립성/자율성의 창업동기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cheiner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자영업 의도를 조사한 결과, 자아실현, 경제성, 가족사업유지의 동기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cClelland DC(1961)는 미국과 이탈리아, 폴란드, 청소년들의 성취욕구

와 창업관련 행동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강한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은 창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높은 성취욕구가 창업가적 직업을 선택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Johnson BR(1990)은 성취욕구와 창업행동과 성향과의 관계를 다룬 23개의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취욕구가 창업관련 행동이나 성향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Yoon BS 2004; Lee JW 2000; Brockhaus RH & Horwitz PS 1986)에서도 성취욕구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밝혀내었다.

한편, Ha KS(2011)는 취업의 대안으로서의 창업보다 자아실현의 창업동기를 갖는 경우 창업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SS(2006)은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독립성 및 소득, 자아실현요인이 여성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Kim SS(2009)은 한국의 잠재창업자(대학생)의 창업동기 중 기업가로서의 욕구와 취업의 대안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동기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H1. 창업동기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성취욕구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경제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자율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자아실현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취업의 대안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성별의 조절효과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창업동기 및 창업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성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기초한 인적자본 접근법이 창업자의 창업행동을 이해하는데 보다 이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창업자의 인적자본 특성 중 주로 언급되는 변수로는 성별, 창업교육과 창업전통, 소득 등이 거론된다(Park SS · Kang SI 2007; Garter WB 1989). 최근 들어 창업동기 및 창업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해 왔는데(Park SS · Kang SI 2007), 특히 창업동기와 창업의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Kang SI · Lee KH 2010; Park C · Kang YR 2010; Hisrich RD & Brush 1984)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Park C과 Kang YR(2010)는 국가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모두 남학생의 창업성향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Kang SI과 Lee KH(2010)의 연구에서도 창업동기와 창업성공요인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창업동기가 다르게 조사되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창업성공요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rush CG(1992)의 연구에서도 창업자의 성별이 인구통계적 특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하였으며, Bradley F & Boles K(2003)과 Demartino R & Barbato R(2003)의 연구들에서도 성별에 따라 창업동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성취욕구 및 경제성(부의축적)의 창업동기가 높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Crant JM(1996)은 여성이 근로시장에서 남성에게 비해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창업의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Greene P(2000)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창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Fisher E *et al.*(1993)과 Kallebrg AL & Leicht KT(1986), Hisrich RD & Brush(1984)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창업동기와 창업의도가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에 대한 동기는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Kim HC · Hong KW 2008).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동기와 창업의도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창업동기

창업동기는 특정한 목표로 행동을 유도하는 지속적인 경향(Engel JF *et al.* 1995)으로, 본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리적인 욕구와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고자 하며, Kang SI과 Lee KH 등(2010)의 연구 및 Kim SS(2009), Kim

HC과 Hong KW(2008), Lee SS(2006)의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보완하여 성취욕구 5문항, 경제성 5문항, 자율성 4문항, 자아실현 5문항, 취업의 대안 7문항 등 총 26문항의 리커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Yoon BS 2004),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려는 의도로 정의하고자 하며, Park SS과 Kim DJ 등(2009)의 연구와 Kang SI(2007), Lee JW(2000), 그리고Crant JM(1996)의 연구에서 인용된 척도를 보완하여 총 6문항의 리커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표본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에 위치한 9개 2년제 대학의 조리학과, 호텔조리과, 조리과학과, 외식조리과, 호텔관광식품료학과 및 바리스타학과 등 외식관련학과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창업에 관심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사전 조사는 2011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 까지 예비 설문지 50부를 배포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문항이 난해하거나 중복되는 설문문항을 삭제 및 수정·보완하였으며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21일 까지 총 32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학교 별로 최대 40부씩을 할당하였고 설문 조사원과 동행하여 학과

방문을 통해 담당 교수와 강의 전 양해를 구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향이 없거나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설문에서 배제하였으며, 연구의 취지와 설문에 대한 설명, 기입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한 후 학생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법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통계분석이 가능한 317부(90.6%)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V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요인 간 연관성 측정을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연구가설을 토대로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적 조절회귀분석(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가설검증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표본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93명(59.4%)으로 여성 124명(39.1%)보다 약간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은 1학년 172명(54.3%), 2학년 145명(45.7%)으로 조사되었다. 전공학과는 조리전공이 208명(75.1%)으로 식음료전공 109(34.4%)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창업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148명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haracteristic		N(317)	%(100)	Characteristic		N(317)	%(100)
Gender	Male	193	60.9	Class	Freshman	172	54.3
	Female	124	39.1		Senior	145	45.7
Major	Culinary	208	65.6	Monthly income (10,000 won)	~20	92	29.0
	Food & Beverage	109	34.4		21~30	76	24.0
Religion	Christian	64	20.2		31~40	67	21.1
	Catholic	32	10.1		40~	82	25.9
	Buddhist	49	15.4	Entrepreneurial education experience	Yes	148	46.7
	Nothing	172	54.3		No	169	53.3

(46.7%), 없는 학생이 169명(53.3%)으로 창업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의 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무교 172명(54.3%), 기독교 64명(20.2%), 불교 49명(15.5%), 천주교 32명(10.2%)순이며, 대학생의 한달 용돈은 20만원 이하가 92명(29.0%)으로 가장 많았고, 40만원 이상이 82명(25.9%), 21만원~30만원이 76명(24.0%), 31만원~40만원이 67명(21.1%)으로 조사되었다.

2. 측정 항목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분석표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료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성개념에 대해서는 주성분 분석기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요인회전 방식은 직각회

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이고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 추출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최초 32문항 중 창업동기의 7개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5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얻어진 측정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총 6개의 요인은 측정항목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외식관련 전공대학생의 창업동기를 ‘성취욕구’, ‘경제성’, ‘자율성’, ‘자아실현’, ‘취업의 대안’으로 명명한 5개 요인과 ‘창업의도’로 명명한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KMO값은 0.794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은 72.944%로 조사되었다. 크론바하 알파 값은 0.684~0.984로 조사되어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intention

Factor	Variable	M±SD	Factor loading	Eigen values	Variance of explained (%)	Cronbach's α
Entrepreneurial intention	EI01	5.35±1.11	0.821	6.543	26.173	0.924
	EI02		0.865			
	EI03		0.827			
	EI04		0.786			
	EI05		0.864			
	EI06		0.812			
Autonomy	MA11	4.85±1.26	0.875	3.763	15.052	0.941
	MA12		0.932			
	MA13		0.876			
	MA14		0.934			
Alternative employment	MAE21	3.78±1.31	0.775	3.005	12.019	0.827
	MAE22		0.790			
	MAE23		0.823			
	MAE25		0.724			
	MAE26		0.683			
Self-actualization	MSA17	4.97±1.29	0.948	2.230	8.919	0.984
	MSA18		0.956			
	MSA19		0.953			
Need for achievement	NFA02	4.92±1.15	0.464	1.518	6.070	0.732
	NFA03		0.568			
	NFA04		0.818			
	NFA05		0.769			
Economic	ME8	4.91±1.06	0.467	1.178	4.711	0.684
	ME9		0.826			
	ME10		0.767			
KMO=.79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7217.336, (df=300, p<0.000)						

Total Cumulative : 72.944% (세부적인 변수내용은 본문 중에 표기하였음)

요인 1은 “언젠가는 나 자신의 업체를 가질 것이다”, “나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하나 설립 또는 인수하여 운영할 것이다”, “나는 업체를 하나 소유하여 운영할 뜻이 있다”, “나는 종업원으로 있기보다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나만의 업체를 창업하고 싶다”, “나는 언젠가 창업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등을 포함한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창업 의도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자유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직장에서의 독립”, “직장에서의 직무만족이 없어서”, “개인의 일과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싶어서” 등 4개의 항목을 자율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채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 등 다른 대안이 없어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가 없는 창업이 미래의 비전이라 생각이 들어서” 등 5개의 문항을 취업의 대안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 “직장생활로는 자아실현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내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자아실현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5는 “나의 사업능력(지식, 기술)을 발휘하고 싶어서”,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어서”, “조직의 구성원보다는 리더가 되고 싶어서”, “사회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등 4개 항목을 성취욕구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직장에서보다 많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있어서 돈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대한 안정을 위해” 등 3개 항목을 경제성으로 명명하였다.

3.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분석

창업동기와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경제성과 자아실현 그리고 자율성과 취업의 대안을 제외한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취욕구와 창업의도 간의 상관계수가 0.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가설 검증

1)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분석 결과, $R^2 = 0.239$, (수정된 $R^2 = 0.227$), $F = 24.017(p = .000)$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공차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0.721~0.879로 1에 가깝고 VIF는 그 값이 10이하일 때 유의한데, 검증결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창업동기 5개요인 중에서 ‘성취욕구’($\beta=0.410$, $p<0.001$)와 ‘자아실현’($\beta=0.159$, $p<0.01$)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설 H1.1, H1.4는 지지되었고, H1.2(경제성), H1.3(자율성), H1.5(취업의 대안)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H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성취욕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1	2	3	4	5	6
1 Need for achievement	1.000	-	-	-	-	-
2 Economic	0.393**	1.000	-	-	-	-
3 Autonomy	0.210**	0.334**	1.000	-	-	-
4 Self-actualization	0.242**	0.088	0.154**	1.000	-	-
5 Alternative employment	0.000	0.231**	0.001	-0.202**	1.000	-
6 Entrepreneurial intention	0.437**	0.205**	0.140*	0.297**	-0.114*	1.000

Note: Pearson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 $p<0.05$, ** $p<0.01$ level (2-tailed)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value	p-value	Result	Tolerance	VIF
	(Constant)	2.378	0.388		6.122	0.000			
Entrepreneurial intention	H1.1 Need for achievement	0.438	0.059	0.410	7.488	0.000***	accepted	0.774	1.292
	H1.2 Economic	0.079	0.059	0.076	1.337	0.182	rejected	0.721	1.386
	H1.3 Autonomy	0.007	0.046	0.008	0.147	0.883	rejected	0.863	1.159
	H1.4 Self-actualization	0.136	0.044	0.159	3.070	0.002**	accepted	0.866	1.155
	H1.5 Alternative employment	-0.071	0.045	-0.081	-1.585	0.114	rejected	0.879	1.138
$R^2 = 0.239$, Adjusted $R^2 = 0.227$, $F = 24.017$, $p = .000$									

p<0.01, *p<0.001

장한 연구들(Yoon BS 2004; Lee JW 2000; Johnson BR 1990; McClelland DC 1961)과 상충되며, Ha KS(2011)의 연구에서 자아실현의 창업 동기를 갖는 경우 창업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2) 성별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가설 2인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회귀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를 독립

변수의 상호작용항으로 추가했을 경우의 설명력 R^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느냐의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Baron RM & Kenny DA 1986).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 번째 단계로 창업동기 요인인 성취욕구, 경제성, 자율성, 자아실현, 취업의 대안의 독립변수를 창업의도의 종속변수에 회귀시킨 결과, 성취욕구와 자아실현 요인이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인 창업동기 요인과 조절변수인 성별을 창업의도에 회귀시킨 결과 R^2 변화량이 0.003% 증가하였으나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280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 세 번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dependent variable(M)	Step 2			Step 3		
	β	t-value	p	β	t-value	p
Dependent variable(EI)						
(Constant)		6.728	0.000		6.663	0.000
Need for achievement	0.355	6.322	0.000***	0.350	3.846	0.000***
Economic	0.065	1.118	0.264	0.029	0.288	0.774
Autonomy	0.020	0.381	0.704	0.059	0.685	0.494
Self-actualization	0.184	3.501	0.001**	0.205	2.644	0.009**
Alternative employment	-0.087	-1.665	0.097	-0.094	-1.204	0.230
Gender	0.055	1.081	0.280	0.046	0.857	0.392
Nfa×Gender				0.032	0.132	0.895
Eco×Gender				0.118	0.407	0.684
Auto×Gender				-0.127	-0.587	0.558
Self-act×Gender				-0.075	-0.386	0.700
Altem×Gender				0.027	0.172	0.863
R^2		0.242			0.255	
ΔR^2		0.003			0.013	
F		16.474			11.666	
Sig F		0.280			0.148	

Note : Gender was coded as 0= male, 1= female

제 단계에서도 독립변수인 창업동기 요인과 성별, 상호작용항 창업동기 요인과 성별을 창업의도에 각각 투입하였을 때 R^2 변화량이 0.013% 증가하였으나 유의확률 F 변화량은 0.1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동기와 창업의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증명한 연구결과(Kang SI · Lee KH 2010; Park C · Kang YR 2010; Hisrich RD & Brush 1984)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IV. 요약 및 결론

최근의 이슈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중장기적인 다양한 접근의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전공 대학생들의 희망직업 가운데 창업을 통한 진로모색 관점에서 창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욕구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졸업 후 창업을 하려는 동기와 성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창업동기는 창업의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로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Alan C & Malin B 2011), 창업동기에 대한 연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론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동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긍정적 창업동기 즉, 유인 요인(pull)과 부정적 창업동기의 추진 요인(push)을 통해 창업동기를 파악하고 창업동기(유인 요인)와 부정적 창업동기(추진 요인)가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누적 설명력은

72.944%로 조사되었다. 도출된 요인의 크론바하 알파 값은 0.684-0.984로 조사되어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둘째,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창업동기 5개요인 중에서 ‘성취욕구’($\beta=0.410$, $p<0.001$)와 ‘자아실현’($\beta=0.159$, $p<0.01$)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성취욕구의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외식관련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취욕구가 창업관련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경제성과 자율성, 취업의 대안의 창업동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외식관련전공 대학생들은 단지 부와 관련된 금전적인 측면에서 창업을 하지 않으며(Heinemann D & Welter F 2007), 대학생들의 사회(직장)경험 부족에서 오는 현실적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식관련 전공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동기(성취욕구, 자아실현)로 창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e SS 2006; Segal G *et al.* 2005; Orhan M & Scott D 2001; Birley S & Westhead P 1994; Kleeble D *et al.* 1992).

셋째,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사회적 지위 향상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이 남녀의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외식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인 요인(pull)과 추진 요인(push)의 이론을 적용하여 창업동기 이론 체계를 만드는데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외식관련 전공자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을 조사하는데 유

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창업동기와 창업의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성별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창업성향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상이함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로써 외식관련전공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가치관이 동일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식관련전공의 창업 교과과정에 적용해 볼 때, 사회적 활동을 권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창업육성 프로그램 또한 성(gender)의 구분 없는 동일한 커리큘럼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식관련전공 대학생의 창업동기 함양과 더불어 창업의육고취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교육 환경여건 부족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창업실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Cho HJ 2010; Kim HS 2001). 창업의 관심은 교육에 의해 동기를 부여하고 의지를 북돋기 때문에(Kim H S · Park BJ 2009; Lee SM · Chang DS 2005; Cho BJ 1998; Timmons JA 1994; Gartner 1985; Clark BW *et al.* 1984), 창업실행을 가능케 하는 창업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창업관련 교과목의 확대가 필요하며, 대학에서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창업 진로방향과 진로지도로 위해서는 창업 진로지도 교과목 개설도 절실하다. 또한 창업경험과 컨설팅 경험이 있는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 다양한 창업 교과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업관련 동아리 형성을 권장하고 외부 컨설팅업체와 창업 현장 체험과 연계한 인턴십을 통해 실질적으로 창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4년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셋째, 창업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공한 개인 창업주(CEO)를 초청하여 창업 성공담을 들려준다거나 창업한 졸업생들 간의 네트워킹 및 역할 모델의 멘토링을 통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업가 정신과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모집단은 서울·경기 및 강원 지역 소재 2년제 대학 9곳으로 한정되어 다양성을 반영하는데 부족함이 있었고 4년제 외식·조리 전공 학과의 대학생을 배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창업동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대학생들의 모집단보다는 창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일반 모집단(예비창업자)들의 창업동기를 연구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예컨대, 대학교 1학년의 경우 일 경험과 직무 관련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동기의 자율성 요인을 설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셋째, 창업동기와 창업의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문화적, 교육적 상황과 환경요인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종단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집단(예비 창업자)을 추출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창업에 관심 있는 외식관련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인 요인과 추진 요인의 동기 이론을 통해 창업동기를 고찰하였으며,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확보된 317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 및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총 2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동기의 유인 요인 중 성취욕구($p < 0.001$)와 자아실현($p < 0.01$)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식관련전공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창업동기로 창업의도가 증진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창업동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별과 창업 교육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론적 시사점과 더불어 대학에서의 창업 활성화 및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 통계청 (2011). 경제활동 인구조사 및 고용동향.
- Acs ZD · Audretsch F · Evans D (1994). Why does the self-employment rate vary across counties and over tim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 871.
- Ajzen I (1988). *Attitude, Personality, and Behavior*. Dorsey, Chicago, IL.
- Ajzen I (1991). The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lan C · Malin B (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 Autio E · Keeley RH · Klofsten M · Ulfstedt (1997).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in scandinavia and in the USA. *Enterprise and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2(2): 145-160.
- Baron RM · Kenny DA (1986). The moder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ird B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4.
- Bird B · Schejoedt KJ (2009). Entrepreneurial behavior: Its nature, scope, research,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in understanding the entrepreneurial mind: Opening the black box. Eds. A Carsrud and M. Brannback. *Heidelberg: Springer* 24(1): 327-358.
- Birley S · Westhead P (1994). Aut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f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1): 7-31.
- Bradley F · Boles K (2003). Female entrepreneurs from ethnic backgrounds: An exploration of motivations and barriers.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Series*.
- Brockhaus RH (1980). The effect of job dissatisfaction on the decision to start a busi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8(1): 37-43.
- Brockhaus RH · Horwitz PS (1986).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 In D. L. Sexton & R. W. Smilor (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Ballinger. 25-48.
- Brush CG (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5-30.
- Buttner EH · Moore DP (1997). Women's organizational exodus to entrepreneurship: Self-reported motivations and correlates with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5(1):

- 34-46.
- Cho BJ (1998). Educating Entrepreneurship: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 Teaching.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2): 27-47.
- Cho HJ (2010). The effect of participation and type of field practice program on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nd ego-identity.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The Journal of Youth Research* 17(7): 47-76.
- Choo S · Woong M (2006). Entrepreneurial intention: triggers and barriers to new venture creations in singapore. *Singapore Management Review* 28(2): 47-64.
- Clark BW · Davis C · Harish V (1984). Do Course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2): 26-31.
- Crant J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2): 42-49.
- Curran J · Blackburn RA (2001). Older people and the enterprise society: Age and self-employment propensities. *Work, Employment & Society* 15(4): 889-902.
- Deci EL · Ryan R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emartino R · Barbato R (2003).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mba entrepreneurs: Exploring flexibility and wealth creation as career motivato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6): 815-833.
- Dennis W (1996). Self-employment: When nothing else is available?. *Journal of Labor Research* 17(4): 645-661.
- Douglas EJ · Shepherd DA (2002). Self-employment as a career choice: attitudes,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utility maximiz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6(3): 81-90.
- Engel JF · Blackwell RD · Minard PW (1995). *Consumer Behavior*. 8th ed. NY: The Dryden Press.
- Evans · David S · Leighton · Linda (1989). Some empirical aspect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3): 519-535.
- Fayoll A · Gailly B · Lassas-Clerc N (2006).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0(9): 701-720.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Reading, MA.
- Fisher E · Reuber A · Dyke L (1993). A theoretical overview and extension of research on sex, gender,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2): 151-168.
- Gartner WB (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696-706.
- Gartner WB (1989).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4): 11-22.
- Gartner WB · Mitchell TR · Vesper KH (1992). Acting as if: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 13-31.
- Gilad B · Levine P (1986). A behavioral model of entrepreneurial suppl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4(4): 45-54.
- Greene P (2000). Self-employment as an economic behavior: An analysis of self-employed wom-

- en's human and social capital. *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12(1): 1-55.
- Ha KS (2011). Analysis of recognition on business risk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4(1): 1285-1311.
- Heinemann D · Welter F (2007). *Grunderstudie 06/07 der universitatssiegen-auf dem weg zer unternehmer-uni*. Siegen: Universitat Siegen.
- Henry A (2001). *Consumer Behavior & Marketing Action*. 6th ed. NY: Thomson Learning.
- Hisrich RD · Brush (1984). The women entrepreneur: management skill and business proble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1): 30-37.
- Jeon BY (2003). A Study of Selection of Self-employ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26(3): 148-179.
- Jo YJ · Lee SH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0(5): 143-154.
- Johnson BR (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39-54.
- Kalleberg AL · Leicht KT (1991). Gend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survival and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1): 136-161.
- Kang SI · Lee KH (2010). The study on owner-manager's characteristics, start-up motivations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of local food restaurants in jeju island.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52(3): 195-209.
- Keeble D · Bryson J · Wood P (1992). The rise and fall of small service firm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1(1): 11-22.
- Kim DJ · Eum TS · Byun GI (2008). Influence of career aptitudes of potential businessman on their determination to start business: Focused on the college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5(1): 67-78.
- Kim HC · Hong KW (2008). Scale development of food service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validity analysis. *J Hotel & Tourism* 29(2): 57-69.
- Kim HS (2001). The development and the effects on the career counselling program for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4): 139-155.
- Kim HS · Park BJ (2009). The demand level for business start-up education and willingness of starting a busines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4(4): 139-165.
- Kim MJ · Kim BW (2007).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 13-25.
- Kim MS · Kim YG (2012). Effect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 Kim SS (2009).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oseo University Doctoral Thesis, 53-59.
- Kolvereid L · Moen O (1997). Entrepreneurship among business graduates: Does a major in entrepreneurship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1(4): 154-160.
- Krueger NF (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Krueger NF · Carsrud AL (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8(3): 91-104.
- Krueger NF · Reilly MD · Carsrud AL (2000). Competing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1): 411-432.
- Kuratko DF · Hornsby JS · Naffziger DW (1997). An examination of owner's goals in sustaining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5(1): 24-33.
- Lee JC · Park MJ · Park JH (2007). Effects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Expectation About Career Counseling Amo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 111-128.
- Lee JH (2008). A study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s and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0(1): 93-116.
- Lee JW (2000).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22(1): 121-146.
- Lee JH · Venkataraman S (2006). Aspirations, market offerings, and the pursuit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1): 107-123.
- Lee L · Wong PK (2003). Attitude toward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11(4): 339-357.
- Lee SS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motivation,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 in women owned busines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8(4): 45-64.
- Lee SM (2005). A study on the business of us, japan & korean collegiate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9(3): 186-207.
- Lee SM (2009). Solving Youth Unemployment through Socia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4(3): 33-53.
- Lee SM · Chang DS(2005).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udy a comparative study the u.s. and korea.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Management Journal* 1(1): 27-43.
- McClelland D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Van Nostrand, 512.
- Maslow A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411.
- Moore DP · Buttner EH (1997). Women entrepreneurs: Moving beyond the glass ceiling.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262.
- Morris MH (1998). *Entrepreneurial intensity*. Westport, Conn: Quorum Books, 37-55.
- Naffziger DW · Hornsby JS · Kuratko (1994).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29-42.
- Nishimura JS · Tristan OM (2011). Using the theory planned behavior predict nascent entrepreneurship. *Academia, Revista Latinamericana De Administration* 46(1): 55-71.
- Nooderhaven NG · Wennerker AR · Thurik AR (2003). Self-employment out of dissatisfaction: An International Study. *ERIM Report, ERS 2003-XX-STR*, Rotterdam, NL: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Orhan M · Scott D (2001). Why women enter into entrepreneurship: An explanatory model.

- Women in Management Review* 16(5): 232-243.
- Park C · Kang YR (2010).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 among Korea, China, Mongolia, and Cambodi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225-246.
- Park SS · Kang SI (2007).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s. *Tourism Sciences Bulletin* 31(2): 187-204.
- park YS · Ko JY (2011). The effect of prospective foodservic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upon the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skill, will to inaugurate an enterprise.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4(1): 157-179.
- perwin L (2003). *The Science of Person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uett M · Shinnar R · Toney B · Liopis F · Fox J (2009).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A Cros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15(6): 571-594.
- Roffey B · Stanger A · Forsaith D · McInnes E · Petrone F · Symes C (1996). Women in small business: a review of research.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28-137.
- Segal G · Borgia D · Scheonfeld J (2005). The motivation to become an entrepreneur.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11(1): 42-57.
- Scheinder C · Laspita S · Brem A · Chlosta S · Voigt KI (2008). Founding intentions: A gender Perspective. *Journal of Asia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4(4): 1-15.
- Taormina RJ · Sammi KML (2006). Measuring Chinese entrepreneurial motivation: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13(4): 200-221.
- Timmons JA (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 Yoon BS (2004). Determinat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Business Research* 17(2): 89-110.
- Yoon JY (2010). Work values of restaurant management students at university level. *Korean J Hospitality Administration* 19(6): 309-322.
- Van Gelderen M · Brand M · Van Praaag M · Poutsma E · Van Gils A (2008).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by mean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6): 538-559.
- Vroom VH (1964). *Work and motivation*. Wiley, New York: NY
- Wang C · Walker EA · Redmond J (2006). Ownership motivation and strategical planning in small business. *Journal of Asia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2(4): 1-27.
- Yoon MH · Shin HS · Seo HJ (2010). The study on the career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4): 305-327.

2012년 07월 04일 접수

2012년 11월 15일 1차 논문수정

2013년 03월 13일 2차 논문수정

2013년 04월 24일 3차 논문수정

2013년 05월 15일 논문게재확정